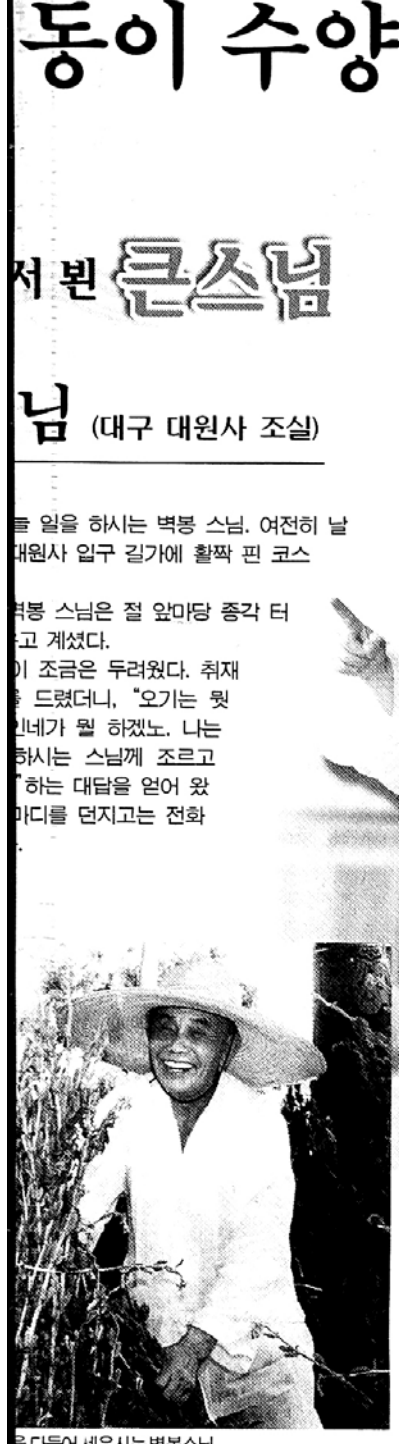
동이 수양인 본분

저 뵌 큰스님

님 (대구 대원사 조실)

들 일을 하시는 벽봉 스님. 여전히 날
대원사 입구 길가에 활짝 핀 코스

벽봉 스님은 절 앞마당 종각 터
고 계셨다.
이 조금은 두려웠다. 취재
을 드렸더니, "오기는 뭣
신네가 뭘 하겠노. 나는
하시는 스님께 조르고
"하는 대답을 얻어 왔
마디를 던지고는 전화
.



을 다듬어 세우시는 벽봉스님.

겠노. 이것이야 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라 수형하고, 깨침을 얻으려는 수양인의
분이지.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모두 돈을
의 척도로 삼아서 생활하다 보니 다들 번
에 끄달리는 것이야. 자기 삶에 필요한 최
한의 것만 갖추고, 나머지는 남을 위해 써
하지만 어디 그게 쉽게 되나? 좋은 것 가
면 가질수록 더 좋은 것이 탐이 나고, 음
도 마찬가지 아니요. 매일 풀죽만 먹던 사
이 쌀죽을 먹고 나면 입맛과 생각이 바뀌
, 또 쌀죽에서 쌀밥을 먹어보면 또 마음이
하고, 쌀밥을 먹고 나니 고기반찬까지도 먹었으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아니겠소. 사람의 욕심이란 끝이 없어서 항상 바른 마음으로 바른 생각을 갖고, 바른 행동으로 정진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은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스님의 발걸음은 자연스레 옥수수 밭으로 옮겨졌다. 옥수수 대에서 옥수수를 하나 뚝 잡아떼시더니, 다시 말씀을 이으셨다.

"이 옥수수만 해도 그렇지, 요즘 누가 이런 거 거들떠나 보오? 하지만 이 작은 옥수수 알 하나에도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 있다는 걸 안다면, 하찮은 옥수수 하나도 귀하게 여기게 될 터이고, 그렇게 작고 보잘것 없는 사소한 일 하나에도 온 마음을 쏟아 바라보게 되면 자연히 바른 마음을 갖게 되고, 그 마음이 바른 생각으로 이어지고, 바른 행동으로 옮겨져서 생활 속에서 스스로 정진하게 된다면 그게 바로 불자의 삶이요, 수행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모두들 자기 앞에 놓인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가르침이나 수행이 저기 멀리 고차원적인 그 무엇이라는 기대와 환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항상 번뇌도 끊일 일이 없는 것이요."

스님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밭에서 일을 하는 이유를 조금이나마 알 것 같았다. 자연과 함께 숨쉬며 자



◇벽봉스님은 아주 작은 일 하나에도 우주의 진리와 생명의 가르침이 담겨있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온 마음을 쏟아야 한다고 말씀하신다.

"90살까지 일해야 안되겠나 못다한 종각불사 마무리하고 유치원·납골당도 짓고 싶은데…"

연과 인간을 둘이 아닌 하나로 생각하고, 그들속에서 함께 공생하는 우주의 존재임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스님의 생활이자, 수행임을.

"요새, 절에 신도들이 찾아와서 내보고 '스님, 고마 쉬시고 상좌한테 맡기소' 하지만은 나는 아직도 내가 할일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한 90살 까지는 일해야 안되겠나. 하다만 종각불사도 마무리하고, 유치원도 만들고, 납골당도 짓고 싶은데 내가 생각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허허허…."

90세 까지 원력을 세우로 열심히 일하겠다는 벽봉스님. 스님은 돌아가는 길에 먹으라며 옥수수 두 덩이를 내어주셨다. 스님이 주신 옥수수는 여느 옥수수가 아니었다. 온 우주 생명의 가르침이 담긴 옥수수. 차를 기다리며 그 옥수수 한알 한알을 맛 보면서 밭에서 일하시던 스님의 모습이 떠올랐다.

글=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벽봉스님은?

강원 졸업 후 대학서 철학 전공

벽봉 스님께 사진 촬영을 위해 가사 장삼을 입으시라 했더니, 주섬 주섬 옷을 입으시며 난데없이 옛날이야기를 마구 늘어놓으셨다.

경북대학 철학과 3학년 시절, '홀치기' (군대에 억지로 징집당해 가는 것을 스님을 이렇게 표현했다당할 뻔 했다 나온 이야기, 상좌들 혼냈던 이야기, 또 백양사 서옹 큰 스님과의 인연으로 한때 조계종 총무원 사서실장을 맡았을 때 이야기 등.

스님은 서옹 스님이 총무원장으로 부임하던 때 당신을 사서실장으로 임명했다면서 "그때 국회부의장 무슨 당 총재, 뭐 이런 사람들 만나는데 산중에만 있다가 나가보니 촌뜨기가 돼서 아는 게 없는지라 그런 높은 사람들 만나도 순서를 어떻게 정하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알 수 가 없었지. 그때 사회부장이던 혜성 스님(전 도선사 주지)이 나를 많이 도와줬어"라고 말씀 하셨다. 큰 스님 자신도 당시의 일들을 기억해 내며 추억하시기를 즐기는 듯 했다.

벽봉스님은, 1936년 해인사에서 설석우 스님을 은사로 득도했으며, 50년 해인강원에서 수학하고, 67년 경북대 문리대 철학과를 졸업했다. 거창 연수사, 의성 고운사, 대구 보현사 등을 거쳐 92~94년에는 대구 동화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대구 팔공산 대원사와 칠곡 송림사 조실이다.



리선행 법사의 스님이야기

홍도스님 (2)

홍도스님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자비심이 대단했던 보살'이라고 입을 모은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마치 숨쉬는 것처럼, 밥먹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자비행을 폈던 분이 바로 홍도스님이기 때문이다.

스님은 신도들의 생일을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다 챙겨주셨다. 신도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도 아니요, 시간적 여유가 있어서도 아니었다. 생일날 일일이 집을 찾아가 축하하고 대화 나누는 것을 좋아하셨다. 신도 누구의 생일날을 맞으면 불공드리고 축원 올린 떡을 일일이 들고 신도 집에 가져다 주었다. 간혹 다른 종교를 믿는 친지가 함께 있는 등 사정이 있어 스님이 오는 것을 귀찮아 하는 신도도 있었지만, 개의치 않았으며 도리어 덕담으로 그 신도의 체면을 살려주었다. 이런 스님의 행동 때문에 일부 스님들로부터 '떡장수'라는 비야냥을 들었지만 미소로 넘기곤 했다. 그때 스님이 생일을 맞은 신도집을 찾아 그 가족과 축하하고 대화를 나누고 한 일이



이후 가정법회나 지역법회의 시초가 되지 않았나 싶다.

스님은 단순히 생일 축하만 한 것은 아니다. 어떤 집에 가서는 그 집 아들 취직시켜 주기 위해 이곳 저곳 전화하느라 한나절이 걸리기도 하고, 또 어느 집에서는 혼기놓친 딸을 위해 몇 시간씩 걸려 중매를 서기도 했다.

살을 에는 추위가 몰아치던 엄동설한의 어느 날 생일맞은 이만 12명이었다. 나는 홍도스님과 함께 생일 떡 12판을 짊어지고 절을 나섰다. 떡을 하나 들고 신도집에 들어가신 스님은 바깥에서 떨고있는 나를 몇 시간이나 잊어버리셨는지… 지금 생각하면 어린 출가자였던 내게 인욕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여겨진다.

스님은 당시 몇 군데 되지 않은 불교보육원 중 하나인 송암보육원 이사의 책임을 맡아 교통 불편한 경기도 시흥까지 수시로 드나들면서 원생들을 위로하였다. 아이들과 법회를 함께 봉행하고 허물없이 놀아주곤 했는데, 그 일을 귀찮아 하지 않고 즐겁게 했다. 원생들 스스로 자치적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스님은 전화 담당하는 어린이를 '통신참모', 자동차 담당은 '수송참모', 식사 담당은 '군수참모'라 호칭하면서 부모 없는 아이들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또 기억나는 일이 있다. 1967년 여름 충남 청양에 있는 구봉광산에서 갱도가 무너져 양창선이라는 갱부가 매몰, 18일만인가 구출된 사건이 있었다. 그때 스님은 그 보도를 듣고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 무사히 구출되기를 기원하는 기도를 보름간이나 했다. 갱도 앞에서 절실하게 발원하는 모습이 마치 아들을 구하기 위해 절규하는 어머니의 모습과도 같았다. 갱도가 있던 곳은 오지의 산속이라 숙식을 해결할 곳이 마땅치 않아 산중턱에 버려진 너 댓 평 남짓한 산신당에 묵었는데, 한여름이라 모기가 어찌나 무는지 나는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불평이라도 할라치면 스님은 "땅속에 매몰돼 있는 사람을 생각하라"는 말로 내 입을 막았다. 이렇게 스님은 하루가 멀다하고 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참사를 내 일처럼 가슴아파하고 피해자들을 위해 늘 기도 올렸다.

서울 시민회관과 대연각호텔에 화재가 났을 때도 득달같이 달려가 유리 파편이 튀는 현장에서, 인명피해를 줄이고 구명을 위한 기도를 불보살님께 철야로 올렸다. 그 모습이 어찌나 간절하든지 지나가는 시민들의 얼굴마저 숙연하게 만들었다. 그 광경을 전해들은 서울시장이 나중에

"매몰광부 무사" 보름간 기도 군위문·합동결혼식 주례도

스님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기도 했다.

스님은 정말 바쁘게 살았다. 군부대 위문행사시에는 언제나, 스님 키보다 더 큰 위문품을 메고 나타났다. 최전방인 애기봉의 점등법회나 청소년을 위한 각 행사에서도 맨 앞줄에는 늘 작은 키의 스님 모습을 뵙 수 있었다.

또 스님은 해마다 절에서, 돈이 없고 형편이 안돼 결혼식을 올리지 못하고 어렵게 사는 부부들의 무료 합동결혼식을 올려주었다. 스님이 주례를 맡았는데 주례사를 얼마나 재미있게 하든지 신랑 신부는 물론 하객들의 폭소가 연신 터졌을 정도로 결혼식 분위기가 늘 화기애애했다. 매년 개최하는 경노잔치때는 노인들과 어울려 자식들보다도 더 살갑게 노인들을 위로해 주었다.

홍도스님 주머니에 있는 돈은 '먼저 본 사람이 임자'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스님의 주머니는 늘 열려있었다. 어떤 돈이라도, 심지어는 불사에 쓰라고 받은 보시금일 경우에도 누가 어려운 사정을 얘기하거나, 불쌍한 형편을 보면 먼저 집어주곤 했기 때문이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처럼 남 주기를 좋아하고, 보살행에 앞장섰던 스님은 진정한 '무주상보시'의 표본을 보이셨다. 44년이라는 짧은 생애를 베푸는 삶으로 채우신 스님은 혹 보현보살의 화신은 아니었을까.

▩ 횡성 '마음의 쉼터' 회주

한국산 가시오가피의 대명사

함박재 토종 가시오가피

■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시킨 함박재 농장!

함박재농장은 멸종위기에 처해 보호야생식물(자연환경보전법 제2조)로지정되어 있을 만큼 희귀한 가시오가피 대량재배(10만평, 50만주)에 성공하였습니다.

-KBS, MBC뉴스에 보도 됨-



세계 최초 기업농으로 성공한 강 훈 구 대표

■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상품력과 기술력, 그리고 QM시스템 구축도 및 활용도를 심사받아 KSA(한국표준협회)로부터 으뜸상품 제 2076호로 선정 되었습니다.

■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

함박재 가시오가피는 20여년간 가시오가피 살리기에 노력해 온 점을 인정받아 충청남도 "향토지적재산"으로 선정되었습니다.

※ 제품구입시 가시오가피와 일반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100%국내산 가시오가피를 "꼭" 확인하세요.



▣ 지금 전화주시면 가시오가피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주)한국자연과학
www.ogapiland.co.kr

전화상담 및 구입문의
TEL : (02)2272-4900

특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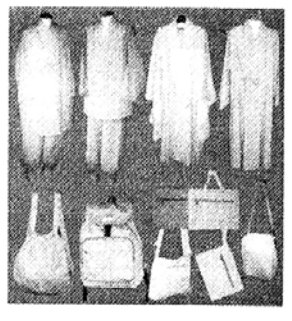
BBS 불교방송(길을 찾아서) 출현 특허에 의한 승복의 우수성을 설명

국내최초로 특허청에 의장등록(제 0246178호)

승복·법복·잠옷·바랑 판매 안내

불교계와 저희 기원섬유가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 고급모직 (특징 - 통풍 잘됨, 가볍고 구김없음,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40,000)
2. 쿨맥스 (특징 - 품질 가장 우수함, 수분 발산율이 빠름, 구김없고 아주 가벼움, 물세탁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80,000) (동방바지 : ₩170,000) (두루막 : ₩150,000)
3. 특수직 (특징 - 제일 가볍고 시원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40,000) (동방바지 : ₩130,000) (두루막 : ₩110,000)
4. 아포텍스 (특징 - 몸에 붙지 않으며 까칠함, 물세탁 가능)
(적삼, 바지, 조끼 : ₩160,000) (동방바지 : ₩150,000) (두루막 : ₩130,000)
5. 광목 (특징 - 순수한국산, 손염색, 멋을 가진 승복)
(적삼, 바지, 조끼 : ₩170,000) (동방바지 : ₩160,000) (두루막 : ₩130,000)
6. 장삼 (조계종, 태고종) - 춘추, 하절기(가사도 주문 받습니다.)
(고급모직 : ₩220,000) (특수직 : ₩200,000)
7. 셔츠 (차이나, 라운드) : 가볍고 시원하며 물세탁 가능 : ₩30,000)
8. 걸망, 바랑, 나들이가방, 손가방, 보조가방
9. 가볍고 예쁜 법복(회색, 밤색) : 조끼 바지 : ₩65,000



하절기 시원하게 보내실수 있게 저희 기원섬유가 책임지겠습니다.

스님께 가사불사 보시하면 십선(十善)을 지어 5가지 큰 공덕으로 삼제팔란을 소멸합니다.

◒ 잠옷(항균처리) - 남, 여(상, 하) : ₩65,000
특징 : 1. 특허청에 의장 등록된 옴자, 연꽃무늬가 은은하게 들어있음 (제0246178호)
2. 항균처리된 제품
항균처리란? 각종 박테리아와 미생물의 증식을 억제시켜 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청결한 몸상태를 유지시켜주는 특수제품 임
3. 고급순면으로 촉감이 아주 뛰어남

※유사품이니 모방할 경우 법적인 제재를 받습니다.

30년 전통의 승복 전문업체 "수레바퀴"
기원섬유

본 사 : 대구 동구 신천 3동 139-1 봉영 B/D 302호
TEL : (053)764-4114 H·P : 011-9850-4400

지역 판매점 모집